일본 자동차전기 대기업, 신흥국 및 환경분야 중점 투자

일본의 자동차 및 전기 부문 대기업은 2010년에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 및 환경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 및 한국 등과의 경쟁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효율을 매우 중시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자동차 7개사 및 전기 8개사는 2010년 설비투자를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 및 환경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자동차 7개사의 설비투자는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1조 8,420억 엔, 전기 8개사는 19% 증가한 2조 2,45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연구개발비의 경우 각각 2조 20억 엔(8% 증가), 2조 4,900억 엔(전년도와 비슷)을 투입할 계획

<표 1> 자동차·전기 부문 대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비(2010년, 억 엔)

기업명	설비투자 (전년대비 증가율)	연구개발비 (전년대비 증가율)
도요타자동차	7,400 (28)	7,600 (5)
혼다	3,800 (15)	5,000 (8)
닛산자동차	3,600 (32)	4,300 (12)
히타치제작소	6,300 (15)	3,940 (6)
파나소닉	4,800 (25)	5,500 (15)
도시바	3,200 (52)	3,300 (2)
소니	2,200 (14)	4,500 (4)

자료: 日本経済新聞(2010.5.23).

□ 기업별 설비투자 계획

○ 도요타자동차 :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220% 증가한 900억 엔 투자(국내는 12% 증가한 4,400억 엔 투자)

○ 혼다 : 중국에서의 신공장 건설과 기존공장 확장 등을 위해 3,800억 엔을 투자(15% 증가)하여 현지 생산능력을 30% 이상 확대

○ 히타치제작소 : 신흥국을 중심으로 철도,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중점 투자(6,300억 엔, 15% 증가)

○ 도시바 : 인도에 화력발전소용 기기의 합작공장 신설 등에 투자(3,200억 엔, 52% 증가). 2012년도까지의 중기계획(5.12 발표)에서는 반도체·원자력에 적극 투자하고 환경·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육성도 가속화할 계획을 밝힘.

○ 미쯔비시전기 : 전력손실을 줄인 신제품 개발 및 설비건설에 130억 엔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제품화할 계획

□ 향후 일본기업들은 중국, 한국 등과의 경쟁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효율을 매우 중시할 것으로 예상

○ 예컨대 도시바는 투하자본영업이익률(ROI)을 2009년 5%에서 2012년 20%까지 향상시킬 계획

<참고자료>

日本経済新聞(2010.5.12, 5.23, 5.25).